

한국호스피스협회의 정체성과 교회의 사명

전 재 규*

호스피스는 죽음을 앞둔 말기 환자와 그 가족을 사랑으로 돌보는 행위로서 환자가 남은 여생동안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살다가 평안하고 복된 죽음을 맞이하도록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영적 그리고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며, 사별 가족의 고통과 슬픔을 경감시키기 위한 총체적인 돌봄이다. 그러므로 호스피스는 근본적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말기 환자에게 접근하는 다양한 공동체의 연합적 돌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호스피스는 인간의 본질에 관한 문제를 취급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알게 되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짓게 된다. 생명과 죽음, 인간의 생사관, 사후 세계관 인간형성의 본질 등이 호스피스 철학의 밑바탕이 될 수밖에 없다.

한국 호스피스협회의 정관은 “말기 환자와 그 가족을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전인적 돌봄」의 호스피스활동과 「하나님의 생명사랑」을 확산시키는데 있다고 그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정관에 명시된 조직의 목적은 그 기관의 정체성과 추구해야할 길을 보여주는 기본틀이라 할 수 있다. 각자 각양의 단체는 지향하는 분명한 길이 있다. 목적지에 도착하려면 가야할 분명한 길을 알고 그 길을 따라 전진해야 할 것이다. 길을 잘 못

들거나 도중에 길을 잃으면 방황하게 되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게 된다.

정관의 서두에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에 따라’한다는 말이 된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다(요14:6). 이 길을 따라 진리와 생명을 추구하고자 함이다. 동시에 정관에 나타난 ‘전인’이 무엇이며 ‘생명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 확실한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분명한 목표를 세워 그 길을 가야할 것이다.

1. 호스피스의 핵심 사상

1. 생명 사랑

우리는 생명을 사랑한다. 그리고 죽음을 경유하는 영원한 생명을 더욱 귀중하게 여긴다. 그런데 생명의 정의를 물으면 알듯 말듯하다. 생명의 정의를 사전 여러 곳에 찾아보았으나 시원스런 해답이 없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 하는 사람의 생명을 논함에 있어서 생명이란 주제는 결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은 그 해답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내가 곧 생명이다(요 14:6, 14:25), 내가 생명의 떡이다(요6:33), 내가 생명의

* 의사, 한국호스피스협회 이사장, 전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장

물이다(계22:17), 등으로 시작하는 생명에 관한 설명은 생명이 무엇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요11:25,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14:6,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1:3,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엡1:10,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골1:16, 만물이 그에게 창조 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 되었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롬11:36,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상의 성경 구절을 종합하면 생명뿐 아니라 만물은 그리스도 안에서(in him) 나오고 그리스도를 위하여(for him), 그리스도를 통하여(through him), 그리스도에 의하여(by him) 태어나서 그 안에서 연합하여(united in him) 기능하다가 그에게(to him)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은 그 안에서 태어나고, 그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죽음이다. 이 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사상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생명의 본질을 알고 생명의 본질을 사랑해야한다. 생명의 정의조차 모르면서 생명을 사랑한다는 말은 수박 겉을 훑는 것과 같을 것이다.

2. 존엄성 존중

인간은 존엄성의 존재이다. 인간이 근본적으로 동물과 다른 점은 태어날 때부터 존엄성을 가졌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존엄성이란 무엇인가? 먼저 나는 누구인가를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에게 존엄성의 정의를 질문해 보았으나 아무도 시원한 해답을 주지 못하였다. 우리 말 사전에는 존엄성을 존엄한 성질, 품위라 쓰여 있고 존엄은 높고 엄숙함, 높아서 범할 수 없음이라 기록되어있다. 이는 너무나 막연한 말이요 추상적인 말이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추상적이거나 가상이 아니라 실제 소유하고 있는

분명한 성품의 품격을 말한다.

철학자에게 인간의 존엄성이 무엇이나고 물었더니 그의 대답은 명쾌하였다. 인간이 만들어 질 때부터 원래 갖고 태어난 고귀한 성품이라 하였다. 나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인간은 원래 존엄성을 가지고 창조되었다는 설명 외에 어떠한 다른 설명으로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렇다면 기독교적 창조론으로 돌아가서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으며 어떠한 구조로 창조되었는가 성경적으로 설명 해보기로 하자.

창1:26,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1:27, 하나님이 자기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 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느니라.

이상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원래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서 만들었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하면 인간의 존엄성을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 속에 내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라 정의할 수 있다.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구성 되었는지를 생각해보자. 신학적 인간론에는 인간이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었다는 2원론과 몸과 영과 혼으로 구성되었다는 3원론이 서로 대립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호스피스를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3원론이 쉽게 설명 할 수 있고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살전5:23,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 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 되기를 원하노라
히4:2,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상의 두 구절만 보더라도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따라서 인간은 육체적 존재(somatic being)와 혼적 즉 정신적 존재(soul, mental being)와 영적 존재(spiritual being)의 연합으로 구성되어 균형을 이루어 사회적 존재(social being)로 기능한다.

- ① 몸(soma)은 가시적이며 땅위에서 살아 갈 때 일하는 실체적 존재로서 균형 있게 발전된 몸을 체적이라 한다.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였다. 몸은 근육

과 뼈대로 연결된 체격을 말한다. 우리의 가시적 인 체격도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전으로 표현 되고 있다.

- ② 혼(soul)은 지각과 감각을 동원하여 의지로 결단 하는 인격을 형성한다. 이 인격의 세계는 연구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새로운 것을 생산하여 이어가는 역사와 문화를 창달해간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번성하고 다스리고 점령하라는 문화 명령을 수행하기 위함이다.
- ③ 영(spirit, pneuma)은 하나님의 성품으로써 인간의 구성 요소가 된 영적 존재 (spiritual being)이다. 많은 사람들은 영혼의 은총을 노래하면서도 자신이 영적으로 지음 받은 사실은 망각하고 있다. 인간의 영적 존재는 성전의 지성소와 같아서 가장 거룩한 장소로 하나님이 임재 하는 곳이다. 인간이 영적 존재임을 확실히 인정하지 않으면 호스피스에서 강조하는 영적 돌봄과 존엄성의 존중은 불가능하다. 지면의 제한으로 상세히 설명 할 수 없으나 인간은 육체적 존재, 혼적 존재, 영적 존재가 함께 결합된 실체로서 이웃과 더불어 사회적 존재로서 살아간다. 이와 같이 인간은 존재론적인 면에서 확실히 동물과는 다른 고귀한 존엄성을 지니고 있다.

3. 재림과 부활 신앙

재림과 부활 신앙은 기독교에만 있는 특수한 핵심교리이다. 기독교의 부활이란 죽었다가 그냥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육체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몸을 말한다. 지금까지 부활한 사람은 예수 밖에는 아무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의 첫 열매라 부른다. 둘째 부활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성도들의 부활을 말한다. 한국호스피스 협회는 바로 이 재림과 부활신앙의 토대위에 세워져 있다.

요11:25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 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는다.

행1:11,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 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계22:20,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와 같이 기독교적 호스피스의 핵심은 재림·부활·영생의 신앙에 근거한다.

4. 노인 공경 사상

노인 공경 사상은 살아있을 때의 섬김과 돌봄이다. 그러나 효도 사상은 죽은 후의 제사를 욱 중하게 여긴다.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존엄성의 존재로서 이웃을 존귀히 여기며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이다. 사회적 존재로서의 활동은 이웃과 더불어 살아간다. 나의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운 이웃은 나를 낳은 부모이며 가족이다. 호스피스 사역은 이웃을 사랑하는 공홀과 자비의 실천이므로 살아있는 노인을 공경하는 것에 무게를 둔다. 기독교의 효도는 죽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을 때 특히 도움이 필요한 노년기에 돌보는 사상이 부모공경 사상이다.

5. 죽음에 관한 바른 이해

시116:15,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 도다.

전7:1,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 집에 가는 것보다 나오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가 이것에 유심하리하다.

죽음은 사후세계로 전근가는 정상적 과정이다. 죽음은 죽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으로 가는 관문이다.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기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인생을 결산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주위 사람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시기이다.

- ① 죽음은 죄의 결과이다.
- ② 죽음은 다시 사는 과정이다.
- ③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열이며 부활의 기약이다.
- ④ 죽음은 천국과 지옥을 향하는 통로이다.
- ⑤ 성도의 죽음은 주께로 돌아가는 관문이다.

6. 내세에 관한 바른 이해

많은 다른 종교에서는 내세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는 내세의 장소와 생활 형태를 소상하고도 분명히 설명하고 있다. 내세 즉, 천국에 대한 확신 없이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희망을 줄 수 없다. 호스피스 봉사자 중에 내세에 대한

확실성이 없는 사람은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설득력을 상실한다. 그러므로 호스피스 봉사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실성을 가져야 한다.

II. 호스피스의 실천

1. 고통과 위로의 실천

인생은 고통과 위로의 두 큰 수레바퀴로 굴러간다. 고통 없는 위로가 있을 수 없고 위로 없는 고통은 지옥이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고통은 몸과 혼과 영을 보존하고, 성장하기 위한 필수적 도구이며 동시에 위로는 고통을 극복해 가기 위한 무기이다. 위로는 현대 의학을 포함한 모든 돌봄을 말한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고후1:3,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성령은 보혜사(comforter)요, 위로자시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자비의 선물이며, 은혜이다.

2. 긍휼과 자비의 실천

마12:7, 나는 자비(mercy)를 원하고 제사(sacrifice)를 원치 아니하노라.

사랑 → 긍휼 → 자비 → 위로 → 은혜 → 감사의 형태로 발전해 간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내적 동기요 원인 행위이며, 자비는 긍휼을 따라 실천하는 행위이다. 긍휼 없는 자비는 뇌물이요, 자비 없는 긍휼은 비 없는 구름과 같다.

3. 인간관계 (섬김과 돌봄)의 실천

인간은 원래 관계의 존재이다.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관계 속에서 협력하고, 사랑하므로 당신과 나와 관계를 이어가며 역사와 문화를 성장시켜간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관계 속에서 문화와 역사를 발전시켜 간다. 관계성의 가장 중요한 것은 돌봄의 개념이다.

인간관계의 기본은 가족 관계이다. 가족 관계가 파괴되면 사회도 파괴된다. 호스피스는 가족 관계를 재건한다.

4. 영혼 구원의 실천

호스피스의 궁극적 목적은 영혼 구원과 영생에 있다. 호스피스 사역에서 영적 돌봄(spiritual care)이란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실제로 기독교적 호스피스 외에는 영적 돌봄을 거의 하지 않는다. 영적 돌봄을 정신적 돌봄과 혼동하고 있는 것이다. 영적 돌봄이란 사람은 영적 존재임을 확실히 하고, 영혼 구원을 위한 영의 돌봄이 되어야 할 것이다.

5. 생명 윤리의 실천

사람의 생명은 존귀하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명이 함부로 취급될 수 없다. 불교의 살생계는 지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대상으로 하나 기독교의 제 6계명의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철저한 생명윤리를 가르친 말이다.

III. 교회의 사명

호스피스의 핵심 사상은 기독교의 조직 신학에 해당되며 호스피스의 실천 사역은 기독교의 실천 시학에 해당된다. 호스피스는 원초부터 기독교의 교리 위에서 출발된 사역이므로 기독교적 접근이 가장 자연스럽게 적극적이며, 성공적이다.

기독교적 호스피스는 목회사역의 핵심인 부활 신앙과 재림 신앙을 토대로 하여 교회 사명의 본질인 생명 사랑, 이웃사랑, 인간 존엄성의 존중, 영생의 소망, 영혼의 구원 등을 추구하는 실천 신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호스피스 사역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호스피스를 목회 사역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한국 호스피스협회의 기독교적 호스피스 사역이 목회사역의 일부로 발전하여 호스피스가 교회에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